

커피점서 빙수 먹으면 지갑도 추워진다

물가감시센터 가격 조사... 커피점 > 디저트카페 > 제과점 순

점심 평균값의 1.5배... "원가 비해 가격 너무 높다" 지적

할리스·파스쿠찌·엔제리너스·투썸 등 시중에서 판매중인 여름철 대표 디저트인 빙수 가격이 원재료비용 및 총원가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점별 가격 차이가 크고 직장인의 평균 점심 값인 6488원의 1.5배에 달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달 판매점별 빙수가격을 조사한 결과,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되는 빙수 평균 값은 9341원으로 빙수전문점(7750원), 제과점(7846원), 디저트카페(8950원) 빙수 가운데 가장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빙수전문점보다 1591원 가량 비싼 수준이다.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경우 파리바게뜨(명동)는 6000~7000원, 뚜레쥬르(명동)는 7500~8000원 등에 판매됐다. 빙수전문점은 설빙(인사) 7000~9000원, 옥루몽(종각) 8000~9000원 등으로 조사됐다. 대중적이면서도 가장 비싼 판매채널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었다. 이들의 빙수 가격을 살펴본 결과 카페베네는 8900~1만3500원선이었다. 엔제리너스는 9800~1만1000원, 투썸플레이스는 9000~1만5000원 등 조사대상 업체 모두 8500원 이상의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다.

팔빙수는 평균 9250원, 과일빙수는 평균 1만36원 수준으로 직장인의 평균 점심 값인 6488원의 1.5배에 달했다. 1만원을 훌쩍 넘는 고가 빙수도 있었다. 카페베네의 '뉴욕치즈케익빙수'는 무려 1만3500원이었고, 망고빙수·다치커피빙수(엔제리너스)는 1만1000원, 티라미수빙수(투썸플레이스)는 1만5000원이었다.

원재료비는 불과 25%, 총원가 분석 시 마진은 40% 달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팔빙수(8888)와 과일빙수(5946)를 기준으로 빙수 원가를 분석한 결과, 8900원에 판매중인 팔빙수의 원재료비는 ▲팔 373원(200g) ▲떡·콩가루 478원(121g) ▲연유·우유 690원(각 80g) ▲아몬드 550원(40g) ▲얼음 306원(367g) 등 총 2397원이

■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빙수 원가분석

구분	팔빙수(A업체)		베리빙수(B업체)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판매가격	8,900	100.0	9,800	100.0	
총원가	5,514	62.0	5,702	58.2	
변동비	원재료비	2,397	26.9	2,269	23.2
	인건비	1,145	12.9	1,261	12.9
	수도광열비	130	1.5	143	1.5
고정비	임차료	1,438	16.2	1,583	16.2
	감가상각비	405	4.5	446	4.5
판매가격+원재료비		6,503	73.1	7,531	76.8
이익		5,228	58.7	6,127	62.5
판매가격+총원가		3,386	38.0	4,098	41.8

주: 1) 원재료비: 방문조사 및 타전문점 유사빙수 레시피를 근거로 각 재료의 총량을 추정·적용함. 2) 변동비·고정비: 타 커피전문점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매출액 대비 각 비중을 적용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로 판매가의 25% 내외였다고 소비자단체 측은 밝혔다.

원재료뿐 아니라 빙수 판매에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변동비(원재료비·인건비·수도광열비)와 매장유지 고정비(임차료·감가상각비)를 감안하더라도 팔빙수의 총원가는 5514원 등으로 40%의 높은 순이익이 발생했다.

용량도 너무 많았다. 대부분 2인 기준으로 투썸플레이스의 일부 메뉴를 제외하곤 2인분 메뉴만을 취급해 소비자의 편

의성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단체 측은 "여름철 단기간 매출을 노리고 대용량 위주로 고가정책을 구사해 매출을 극대화하려는 업체들의 전략으로 판단된다"며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운용돼 소비자들의 과소비를 유도하고 있어 빙수제품의 합리적 가격과 소비자의 선택권, 건강권을 위한 업체들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스마트폰 방수팩 믿었다간 '수리비 폭탄'

잠금장치 불량·손상제품 많아

사용 전 방수 테스트 해봐야

바다로 물놀이를 간 회사원 이모씨는 인터넷에서 산 스마트폰 방수팩만 믿고 물에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방수팩에 물이 새는 바람에 휴대전화 수리비만 50만원이 들었다. 그는 업체에 수리비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제품 하자인지 소비자 과실인지

증명할 길이 없어 25만원만 보상해주겠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방수팩 피해 관련 상담이 2012년 37건에서 지난해 111건으로 300% 급증했다고 17일 밝혔다.

상당수 업체가 방수팩이 수심 10~30m에서도 '완벽한 방수'가 된다고 광고하지만 대부분 제품은 폴리염화비닐이나 폴리우레탄 소재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비닐이 찢어지면 습기가 쉽게

고, 요철 구조로 맞물린 슬라이드 잠금장치가 잘 맞물리지 않아도 쉽게 물이 들어갈 수 있다.

1회 이상 사용한 제품에는 하자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업체가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사용 전 방수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방수팩의 유통기한은 보통 1년 남짓이므로 오래전에 사용한 방수팩은 걸음으로 말짱해 보여도 쓰기 전에 방수 여부를 시험해보는 것이 좋다.

연합뉴스

"구강청결제 삼키면 안돼요"... 대부분 알코올 함유 어린이 사용 주의

소비자원 조사... 성분표시 미흡

타르 색소 등 화학 성분 다양

시판 중인 구강청결제 10개 중 3개는 살균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구강청결제 15개 제품의 살균력과 성분 등을 조사한 결과, 동아

제약의 '가그린', LG생활건강의 '페리오', 한국존슨앤드존슨의 '리스테린' 등 10개 제품은 충치유발 원인균인 무탄산균의 살균력이 99.9% 이상이었다고 17일 밝혔다.

반면 유한양행의 '덴탈케어가글 마일드', CJ라이온의 '시스테마', 실란트르의 '덴티스테' 등 5개 제품의 살균력은 99.9% 미만이었다.

성분 조사에서는 알코올 함량의 경우 15

개 제품 중 12개 제품이 2.6~18.6%를 함유하고 있었고, 7개 제품에는 알코올 함유 시 한국산업표준에서 권장하는 어린이 사용금지 경고 문구도 없었다.

특히 '가그린 스트롱'과 '리스테린 티스 앤드 검 디펜스' 등 3개 제품은 알코올 함량이 소수 수준인 15% 이상이었지만 알코올 함량을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앞으로

리스테린에 알코올 농도를 제품에 표시하겠다고 전했다.

타르 색소 함량의 경우 아모레퍼시픽의 '송림' 등 4개 제품이 색소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표시는 전혀 없었다.

타르 색소는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천식이나 과잉행동반응 등의 논란이 있어 사용을 자제하는 물질이다.

연합뉴스

보험 청약 철회 기간 최장 보름 늘어난다

금융위, 개정 보험법 시행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앞으로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청약 후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보름 늘어난다. 또 우편이 아닌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청약 철회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런 내용의 개정 보험법과 시행령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보험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 청약자는 보험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다.

단,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다. 철회 가능기간이 최장 15일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기존에는

청약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 등을 뒤늦게 받아 청약 철회하려고 해도 그 기간이 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보험사와 청약자 간 보험증권 수령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권이 청약자에 도달했다는 점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다만, 건강 진단 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 보험, 타인을 위한 보충보험, 단체보험 등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 철회는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

청약 철회에 따른 보험료 반환이 지연되면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6~7%)로 계산해 반환해야 한다. 또,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 행위에 연루되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연합뉴스

저렴한 고급 별장

정남진 별장은?
접근성, 주변 환경, 천혜의 경관이 어울린 고급 수입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로 남해안 최고의 별장! 광주에서 50분 거리에 소재한 정남진 별장은 위의 조건을 완벽히 갖춘 곳!

토지 4,900㎡
건물 245㎡
매기 협의

- 정남진 정흥, 득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 선착장과 해수욕장, 바다뷰시, 리조트 등 최고의 위락시설과 어울린 명소에
- 캐나다산 수입 목재 건축물(100%)에 수입 천호 등 최고급 자재 및 완벽한 단열, 방음, 방습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별장.
- 완벽한 보안시스템 구축.
- 정남진 별장은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전화상담 사절.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 내방 바랍니다.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송형석
011-642-7777

급매전문 즐거움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임영우 제 관

급매합니다

매매가격	매물종류	내용
2,600만원	오피스텔	금남로역세권 7층39㎡ 총2,600만원(공실)
4,000	무관리인대	금남로가 전향역입구 총16㎡ 유동인구 밀집
6,500	이파동전세	관산구도촌동 중흥아파트2층75㎡ 내인수가능
3,500	대학가상가	나주 대학원 근방역 주변 대51㎡ 월579원
198,600	주책(현역)	서동 주222종이티즌 대411㎡ 원룸 최적
396,200	명일동	광주 황대영 빌15 부98,000원330만원포함
397,000	충장동5기	충장동5기 주인대+세+월17㎡ 2009년510포
795,000	대인동상업	대인동상업160㎡ 전포 포함30㎡ 보1억월1700포함
497,000	대학가상	영남국로부근39㎡ 전1,053㎡ 월매100만원이상
4억	영남권건물	대인동대교변 상업지 4293㎡ 건물2층
5억	예술거리	최고급지 상업지165㎡ 부인구4,000원150포
595,000	역세권빌딩	금남로역입구 대지208㎡ 보3,500원388만원
795,000	역세권빌딩	대인동 상업지271㎡ 부9,000원450포함
14억3,500	역대로코너	금남로역세권195㎡ 부2,980㎡ 보1억 월800포함
24억	역대로코너	중상상업 대410㎡ 전2,600㎡ 보2억월1,000포함
3천~10억	임야·농장	화순 정성당원 국도변 이산·농장 다수 확보

다음카페 즐거움부동산세상을 클릭하면 하루 하루가 싹뻗습니다

다음카페 즐거움부동산세상을 클릭하면 부동산, 건강, 생활 정보가 가득합니다

하루8,000여명이 북적거리는 정터
여러분을 누구나[무료] 참여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

구합니다
찾는 지역,금액,월세비중이 맞지않아 대기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부동산이러면 뭐든] 금액과 지역에 상관 없이 연락주세요 바로 처리하여드리겠습니다

동부소방서사거리(대인동312-1)
☎010-6495-3787/직통062)229-0088

收益 33.3% 호텔 "급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용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급매매

신인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첨단지구 CGV영화관 옆 건물

3층 근린상가 건물매매

노후보장! 월 수익형!

감정가 18억4천4백만원

매매가 16억

또는 5억 투자하시고

매월 월세 300만원씩 받아 가실분

문/의/전/화 010-2804-0632

경매

영광 백수해안도로부근

대지 10,730㎡
펜션부지적합

감정가 5억4300만원
최저가 5억4300만원

신안 증도면
대지 4,858㎡
엘도라도500m거리
펜션부지,계획관리지역
최저가 3억994만원

화순 도곡면 도곡원천역
3.4층 무인숙박시설
대지 2,057㎡
건물 2,332㎡
주변개발호제임
복층형,실내 고급인테리어

감정가 24억9천만원
최저가 17억4천만원

*이외 다수물건 확보

경·공매전문 이주원
010-7171-7610